

3년만에 최고치...진짜 '金값' 된 금값

1g 당 5만346원...5월 금 거래량은 9개월 만에 최대 골드바 보다 금 금융상품 투자...안전자산 수요 증가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빛난 결과다. 저금리에도 금에 투자해도 될까?

13일 한국거래소(KRX)와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 1g은 5만346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거래일 대비 1g당 123.89원(0.25%)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순금 한돈당 금시세는 18만8798원이다.

지난 5일 금 1g 5만430원보다 소폭 내렸지만 금값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의 후폭풍이 몰아친 2016년 7월8일(5만500원) 이후 약 3년 만의 최고가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지난 5월 KRX

금시장의 월간 금 거래량은 557kg으로 지난해 8월(776kg)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투자 수단으로 금의 인기는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금값이 급격히 뛸 탓에 단기적으로는 조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 가격을 끌어올린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리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에 금 가격의 추가 급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게 중론이다. 하반기 미국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와 함께 세계 경기 불안에 금 가격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가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직접 골드바(금괴) 등을 구입하기 보다는 금을 기초로 설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실물 투자는 거래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이다. 은행의 금통장 혹은 신탁 상품이나 증시에 상장된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증가했다"며 "무역분쟁에 획기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금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행보도 금값 상

승에 영향을 미쳤다.

김상국 한국거래소 금시장팀장은 "국내 금 가격은 국제 시세에 원·달러 환율과 여타 수급 요인 등을 반영해 정해지는데, 최근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 금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일 런던금속거래소(LBMA) 금 현물 가격은 1온스(31.103g)당 1331달러로 연초(1286달러) 대비 3.53% 올랐다.

그러나 금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며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위험 자산 기피 심리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

“취직했으니 대출금리 낮춰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직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

를 판단한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가 관철돼 재약정을 할 경우 영업장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체계적인 설계로 노후준비

금호타이어, 경력설계서비스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13일 금호타이어 퇴직예정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인생 3모작 성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퇴직예정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인생 회고와 직업가치관 검사, 버킷리스트작성 등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해 보고 긍정적으로 인생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직예정자 교육은 효과적인 구직활동 방법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이해하고 재무·건강관리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해 보다 안정적인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



증시 부진 속 인버스·레버리지 투자 증가세

ETF 시장 62.5% 차지

최근 미·중 무역분쟁 확대로 증시가 부진하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기초지수의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나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유형 종목에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ETF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5288억원으로 전월(1조2788억원)보다 19.5% 증가했다.

5월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3828억원으로 4월(5조3783억원)과 비

슷한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ETF 시장의 거래가 눈에 띄게 활발했던 셈이다.

특히 ETF 시장을 달군 것은 국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형 종목들이었다.

유형별 거래대금을 보면 레버리지·인버스형의 5월 거래대금은 4월보다 52.2%나 증가했다.

전체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레버리지·인버스형이 62.5%, 국내 주식형이 28.9%, 국내 채권형이 5.0% 순이었다.

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는 'KODEX 레버리지', 'KODEX 200선물인버스2X',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KODEX 인버스', 'TIGER 200선물인버스2X' 등 레버리지·인버스 유형이 6개나 포함됐다.

증시가 부진해 개별 주식 종목이나 일반 주식형 ETF 투자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기초지수 상승률의 2배 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나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형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인버스 종목들은 수익을 냈지만, 레버리지 종목들은 큰 손실을 냈다.

5월 ETF 전체의 월간 수익률이 -4.91%를 기록한 가운데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인버스형이었다. 특히 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기초로 한 인버스 종목 5개는 수익률 17.0~17.3%로 상위 1~5위를 차지했다.

반면 월간 수익률 하위 5개 종목은 코스닥150 지수 또는 코스닥150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종목들이었다.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각각 -20.7%에서 -21.0%로 적잖은 손실을 내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통장 없어도 손바닥 인증하면 된다

KB국민은행, 바이오 인증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

영업점 창구에서도 손바닥 정맥이나 홍채 인증 등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바이오 인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KB국민은행이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지난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서비스는 창구에서 통장이나 도장이 없어도 정맥 인증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은행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열거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3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은행이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지정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국민은행이 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마다 지정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

당시 당국은 정맥 인증이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만큼 사전

에 포괄 승인을 받아 예금을 내주도록 허용해주고서 이번엔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정맥 인증 출금은 기존의 자동화기기(ATM)나 ATM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가능한 방식이어서 영업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ATM 2884대와 디지털 키오스크 34대, 신한은행은 ATM 109대, 디지털 키오스크 51대에 정맥 인증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정맥뿐 아니라 홍채, 지문 인증도 가능한 디지털 키오스크 48대를 운영하고 있고,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정맥 인증 도입을 준비 중이다.

ATM에서 정맥 인증 출금이 가능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별도 법령에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접근매체'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바이오 인증이 보편적 수단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이 277만명, 홍채인증서 이용 고객은 21만1000명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부동산 투자!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선규 H.010-3605-5000